

코스카 전남도회, 정기총회 및 장학금 수여식



코스카 전남도회(회장 강성진)는 18일 제40회 정기총회와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윤학수 중앙회장과 각 시도회장,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삼화(대표 차기기술·

회수), (유)유진건설(대표 유성진), 혁신실업(주)(대표 황의빈·황민우)에 전문건설 백년기업 증서를 수여했으며 화원사 자녀에게 총 5000만원의 장학금도 전달했다. (재)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장학회는 설립 이래 총 3993명의 학생들에게 33억원의 장학금을 수여해 오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SK텔레콤 서부마케팅본부, 어린이 스마트폰 지원



SK텔레콤 서부마케팅본부(본부장 허명복)가 신학기를 맞아 디지털 사각지대 없는 통신환경 조성을 위한 소외계층 어린이 지원에 나섰다. <사진> SK텔레콤 서부마케팅 본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ICT사업 상생발전'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은 어린이에게 스마트폰 기기 값과 12개월 이용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 중이다.

AI로 급변하는 스마트 사회에서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돕기 위한 ESG 활동 일환으로 FH 25년 들어 600여명의 어린이가 등록해 혜택을 받고 있다. 허명복본부장은 "더 나은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상생, 기여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전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신명준 이사장 취임



광주전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은 지난 17일 제3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2·13대 전성주 이사장의 이임식과 제14대 신명준(사진) 이사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과 광주전남이사장협의회 정국선 부회장을 비롯해 광주전남 소재 조합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전임 전성주 이사장은 재임 동안, 협동조합의 공동물류센터와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해 작물보호제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했다. 신임 신명준 이사장은 오는 2029년 2월까지 광주전남 작물보호제업계를 대표해 협동조합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대, 일본 도쿄서 한국문화 홍보 활동 전개



광주대학교 한국문화 홍보단(이하 홍보단)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일본 도쿄 주요 기관과 대학교 등을 방문해 광주대학교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사진) 한국어교육과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꾸려진 홍보단은 국제협력처 최지수 부처장과 팀원

들, 김선진 전 동신대 교수, 이경주(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등과 함께 도쿄도 신주쿠구에 위치한 한국문화원을 찾아 광주대학교를 홍보하고 도쿄의 유명한 고서점 거린인 진보초에 위치한 '책거리'를 찾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수자원공사, 한국폴리텍대학 초청 발전소 견학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주인호)는 지난 17일 한국수자원공사 사회조력발전소에서 한국폴리텍대학 관계자들을 초청해 시설물 견학을 진행했다. (사진)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케이워터기술(주)

영·섬유역본부와 산학협력 MOU를 체결해 기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채용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한국폴리텍대학 이철수 이사장을 비롯한 30여명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회조력발전소 시설물 견학을 진행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이정선 교육감은 18일 시교육청에서 긍정양육을 위한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5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을 시작으로 릴레이로 진행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정선 전남대학교병원장의 추천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이날 아동 학대 예방과 긍정 양육문화 확산을 위한 메시지를 영상으로 촬영해 개인 SNS에 게시했다. 다음 주자로는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안전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지목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TV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V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드래블출력(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친절한 전주씨(재)
35 KBS 뉴스	30 신데렐라 게임(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한글용사 아이야
05 가요무대(재)	1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 수목드라마 키크키크(재)	15 헬로키티 과학교실(재) 30 헬로키티 TV생물도감(재)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찾아가는 푸리교실(재) 55 주니토니 이야기(재)
00 KBS네트워크특선 지명수배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25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00 KBS 뉴스 10 열린채널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테마스페셜
10 어린이동물터비(재) 40 국가유산 순례 드오(재) 45 팔도밥상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5 월24 45 브레드와 워크의 세계여행(재)	55 기본 좋은 날(재)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스튜디오 K 스페셜	55 5시 뉴스와 경제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재)	00 Why? 15 다이노 파워즈 4 30 꿀점 영화가 좋다	10 PD수첩(재)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풍류달빛 공연 스페셜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 집 금송아지	50 신데렐라 게임	05 친절한 전주씨 40 MBC 뉴스데스크
30 결혼하자 명공아!	30 슈퍼맨이 돌아왔다	
00 KBS 뉴스 9	50 수목드라마 키크키크	00 특집 100분토론 <한국 사회를 진단한다>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KBS 뉴스라인W		30 라디오스타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05 아이 러브 스포츠 30 스튜디오 K	00 골 때리는 그녀들
00 KBS 중계식 <피아노트리오 POS>	40 KBS 재난방송센터(재)	15 MBC 뉴스 25 30 손석희의 질문들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8:1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30 박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3(재)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9:20 고향만국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PD로그(재)	19:50 귀하신 몸(재)
07:0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우리가 몰랐던 진짜 겨울왕국 폴란드 -겨울엔 로망스 시티>
07:15 무지개 강아지 달린의 모험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21:35 한국기행 <겨울아, 놀자 3부 나 혼자 간다, 무인도>
17:30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21:55 왔다 내 손주
07:45 하프와 친구들	15:15 나의 두 번째 교과서	22:45 EBS 스페이스 공감
08:00 당동당 유치원	15:55 블록스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8:20 안전초코 핫초코	16:10 당동당 유치원(재)	24:0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08:50 도래미 프렌즈	16:30 페파 피그	24:40 EBS 비즈니스 리뷰
09:05 골짜기와 처음 수학	16:40 마사와 곰	24:55 지식채널e
09:20 사내수공업 가수 - 다비드 붐	16:55 하프와 친구들(재)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7:10 안전초코 핫초코(재)	
10:30 한국기행(재)	17:40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9일 (음 1월 22일 己未)	☎ 010-9790-8237
36년생 연쇄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일취월장할 수 있다. 48년생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다. 60년생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이니 대비해야겠다. 72년생 구색을 다 맞추다 보면 특별함을 도모하기 힘들다. 84년생 자신이 발언한 바는 반드시 지켜야 하느니라. 96년생 추진보다는 안정이 매우 필요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19, 64	37년생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49년생 느낌만으로 판단한다면 오류를 범한다. 61년생 내용이 알아야겠지만 시기를 맞추는 것도 요한다. 73년생 맹점을 놓치지 않아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85년생 탄력이 불면서 증가 일로에 놓이리라. 97년생 생허기질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행운의 숫자 : 43, 62	42년생 준비하다가 하루해를 다 보내게 될 수도 있느니라. 54년생 난해하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보자. 66년생 상대의 마음을 읽고 처신하여야 자연스럽다. 78년생 향방을 좌우할 것이니 현명한 선택이 절실한 때이다. 90년생 원칙적인 적용보다 합리적인 융통성이 더 필요한 때이다. 02년생 제대로만 한다면 대박 나겠다. 행운의 숫자 : 44, 70
38년생 제사 덕분에 이바를 먹는 격이로다. 50년생 심사숙고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62년생 소비적인 요소를 청산해야 자기 발전을 꾀하게 된다. 74년생 부수적인 요소들에게까지 신경 쓰는 것이 좋다. 86년생 본의 아니게 타의 영향으로 변경될 것이다. 98년생 명확해야만 뒤발을 없앨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1, 69	39년생 우열보다는 기호를 따르는 입장이 되리라. 51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63년생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주변을 돌러보는 것이 지혜롭다. 75년생 함묵적인 발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판시세라 할 수 있다. 87년생 절제한다면 성숙한 미래를 앞당길 수 있다. 99년생 집착하게 일하라. 행운의 숫자 : 26, 56	43년생 돈이 들어오더라도 쓸 것이 바로 생긴다. 55년생 만족도 보다 미래의 가능성에 주목하라. 67년생 낡은 것은 버리고, 새 것에 대한 노력을 배가하여 적절하다. 79년생 미리 준비해두어야 목전에서 당황하지 않으리라. 91년생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발전된 양상으로 이끈다. 03년생 강력한 추진력이 요청되는 때이니라. 행운의 숫자 : 29, 93
40년생 강함과 유연함을 탄력적으로 병행하라. 52년생 기서우역의 이치에 의해서 양지가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로 바뀌리라. 64년생 명확한 징후가 될 것이니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 76년생 과욕만 하지 않는다면 커다란 고통은 없으리라. 88년생 일관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00년생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다. 행운의 숫자 : 41, 59	41년생 실행하는 기법에 따라서 천차만별하게 될 것이니라. 53년생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이 따를 수도 있는 판세이다. 65년생 파상적인 양상을 띠다가 서서히 마무리될 것이다. 77년생 기회가 주어질 때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89년생 별로 상관될 일이 아니니 패치치 말고 처리하라. 01년생 컷노레가 나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7, 82	44년생 미비한 점이 보인다면 부분적으로나마 보충하여 덧붙일 필요가 있겠다. 56년생 아무리 사소하게 여겨지더라도 결핍부터 채우라. 68년생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지내야 편하다. 80년생 소신이 있어야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느니라. 92년생 꼭 만나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04년생 다양한 관점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0, 74
	45년생 일관된 노력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만회할 수 있으리라. 57년생 다른 것과 비교될 정도이므로 쉽게 식별할 수 있으리라. 69년생 눈앞의 일에만 급급해 한다면 멀리 내다볼 수 있겠다. 81년생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 93년생 그동안 골머리 왔던 것에 씩이 트는 국면이다. 05년생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실망할 수다. 행운의 숫자 : 34, 77	46년생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58년생 일찍부터 서둘러야 늦게라도 겨우 도달하리라. 70년생 인식하고 있는 관점의 차이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다. 82년생 수고로운 일이 드러나지만 쉽게 극복될 수 있는 처지이다. 94년생 다급한 상황에 놓인다. 06년생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0, 95
	47년생 우연히 같이 있다가 엉겁결에 더불어서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날이다. 59년생 바로 그것이다. 71년생 힘들어 행하지 않아도 저절로 변하여 잘 될 것이다. 83년생 긴요한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으니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 95년생 어려움은 타쳐도 지혜는 샘솟는다. 07년생 유익한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21, 78	